

捨身(Atmabhava—parityaga)에 關하여

李 箕 永

最近 베트남에서 發生한 佛僧의 焚身事件과 關聯하여 巷間에는 여러가지 誤解가 있는듯 싶다. 或은 佛敎는 自殺을 許容한다던가 或은 焚身은 敵對的 抗議를 爲해서 行해 진다던가 하는 臆測이 그릴사 하게 流布되고 있다. 甚至於 政府의 佛敎政策에 抗議한다고 佛僧을 自處하는 한 사람이 焚身할 準備를 갖추어 파고다公園에 가지 갔다가 未遂로 그친 例가 두차례나 있다. 이와같은 誤解는 매우 基本的인 事實에 대한 無智를 表明하는 것으로 佛敎自体를 爲해 부끄러운 일이다. 여기에 이 小考를 실리는 目的은 焚身이란 이름으로 알려진 이 行爲가 가지고 있는 本來의 意味가 조금도 虛無主義에 뿌리박은 絶望的인 自殺이거나 또는 무엇에 對抗하여 憎惡를 더뜨리는 敵對行爲일 수 없다는 點을 밝히려 하는데에 있다.

1

焚身に 關한 理論이나 歷史는 經論史를 通하여 燒身・遺身・亡身・捨身등으로 이름지워진 項目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高僧傳第12에 亡身篇이라는 것이 있고, 續高僧傳과 宋高僧傳에는 各各第27・第23에 遺身篇이 있어 거기서 이 燒身과 關聯있는 高僧들의 事績이 收錄되어 있다.

高僧傳第12亡身第6 (1) 을 보면 11名의 高僧의 事績이 적혀 있

(1) T.2059 高僧傳卷第12 亡身第6 p.403 c-p.406 b.

는데 그中 7名이 燒身供養의 事蹟을 남긴 사람들이다. 나머지 4名의 高僧은 或은 虎災를 消滅하기 爲하여 스스로 自己 몸을 호랑이밥으로 提供한 例를 남겼거나, 或은 自己살을 베어 다른 사람을 救했거나 이는 따위의 例로써 高僧傳論語가 言及하는 바와 같이 「兼濟之道」를 尊重하여 「忘我利物」한 사람들이다. (2)

續高僧傳卷27 遺身篇第7에도 같은 種別의 例들이 收錄되어 있는데(3) 이 中에도 遺身の 가장 顯著한 例는 燒身과 關聯있는 이야기이다.

高僧傳의 例 몇가지를 檢討해보자. 慧羽는 恒常 藥王燒身供養의 教誨를 우러러 본받기를 願하다가 그 뜻이 굳어 香屑를 먹고, 몸을 천으로 감아 捨身品을 외우면서, 스스로 자기 몸에 붙질러 45歲에 一期를 마쳤다고 했다. 또 慧紹는 僧輿의 弟子가 되어 精勤苦行하는 모양이 模範的이더니, 스승을 따라 臨川招提寺에 머물르면서 燒身할 뜻을 가지고, 자함을 지켜 장작레미를 쌓고, 그안에 自己 몸 하나가 들어갈만한 窟을 일어놓고 있었는데 그곳 東山에서 大衆들의 八關이 열리는 날 초저녁에 스스로 行香하고 장작불을 촛불삼아 커 그 中에 앉아서 藥王本事品을 외우며 죽어갔다고 했다. 불이 자살이나 連이어 타 올랐는데 그가 臨終때 同學에게 말한대로 그 後에 그가 燒身한 그 자리에는 梧桐이 자라났다고 했다. 그것이 慧紹 28歲때의 일이며, 元嘉28年이라고 했으니 西紀451年の 일이다. 그보다 앞서 元嘉15年(438)에는 僧瑜가 廬山南嶺에 同學과 더불어 招隱이란 精舍를 개우고 「藥王之殿」을 밝아 燒身하기를 盟誓해 오던 中, 宋孝建二年(455)六月三日 장

(2) *ibid.*, p.406 a.

(3) T.2060 續高僧傳卷第27 遺身篇第7 p.678 a--p.685 c.

작을 쌓아 올리 龕으로 삼고 (集薪爲龕) 여러 僧들을 모셔다가
設齋하고 모든 大衆들에게 告別을 한 다음, 亦是 初夜에 그 「薪
龕」 속에 들어가 「合掌平坐」하고 藥王品을 외우며 죽어갔다.

「火焰充至猶合掌不散」이라 했고 道俗이 그것을 알고 물려와 모
두 「紫氣騰空久之乃歇」한 것을 보았다고 했다. 亦是 여기에도
梧桐나무 이야기가 있는데 이 梧桐은 雙梧桐이라 하고 그 뿌리의
가지가 豊茂하여 그 모습이 「貫壤直聳」하는 듯 하였으며, 識者들
은 이 나무가 마치 娑羅寶樹와 같은 것이라고 評했다고 했다.
그리하여 죽은 僧을 「雙桐沙內」라고 이름부치게 되었는데, 나
중에 平南長史가 된 吳郡, 張辯은 親히 이곳을 보고 다음과 같
은 贊을 남기었다고 했다.

悠悠玄機 茫茫至道
出入生死 孰爲妙寶
自昔藥王 殊化絕倫
往聞其說 今觀斯人
英英沙門 慧定心固
凝神紫氣 表述雙樹
其德可樂 其操可貴
文之作矣 式飄髣髴

또 慧益이란 사람은 宋 孝建年454에 竹林寺에 들어간 사람이었
는데 精勤苦行을 하고 燒身하기를 熱願(誓欲燒身)해 온 스님이며 사
람들이 그것을 듣고 或은 칭찬하고 或은 못마땅히 여겨 왔다고 한
다. 처음에는 穀粒을 먹지 않고 밀가루만을 먹어 오다가 나중에는
그것마저 끊고 기름(蘇油)만을 마시고 그 後에는 기름도 끊고 다
만 香丸만을 들어 왔다. 그리하여 「神情기 篤正」할 程度가 되
었다. 孝武帝는 이런 驚異할 能力에 感嘆을 하고, 사람을 보내

燒身하는 것 만은 中止하도록 諫勸했으나 初志를 굽히지 않고 大明 7年(463)4月8日에 鍾山 南쪽에서 焚燒를 하기에 이르른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였다. 帝自身을 비롯하여 王妃后道俗士庶로 山谷이 메워졌다. 衣寶를 投棄하는 일이 이무 헤아리지 못할 程度이었다. 慧益이 小床위에 앉아 머리위로부터 기름을 퍼붓고 불을 켜 멀러 할 때에 帝가 太宰로하여금 가까이 가서 「道行이 多方이어는 何必殞命이리오. 幸願三思更就異途하소서」 한다. 益은 「微軀賤命이 何足上留天心이리오. 聖慈回已하니 願컨대 度二十人出家하소서」 하니 帝가 이를 許諾했다. 그리하여 益은 손에 솥발을 들고 그 것을 기름에 부쳐 불을 켜 내고 藥王廟을 誦하면서 舍掌하고 죽어갔다. 帝는 다음날 齋會를 열어 사람들을 度하고 燒身한 곳에 本寺에 建주니 藥王寺를 세웠다 한다.

僧慶이란 이는 代代로 五斗米道를 信奉하는 家門에서 태어나 13歲에 出家해서 義興寺라는 곳에 머물러 梵行을 닦아 왔다. 「漸絕糧粒唯服香油」 했다 했으니, 前二者의 境遇와 같다. 그리하여 大明3年(462)2月8日에 그 스스로가 만든 佛像앞에서 「焚身供養」 했다는 것이다.

法光이란 스님은 29살에 出家해서 「苦行頭陀」를 해왔는데 그도 亦是 「絕五穀唯餽松葉後誓志燒身 乃服松膏及飲油經于半年」 했다 하므로 前二者와 同類라 하겠다. 무슨 經을 외었다는 이야기는 없으나 齊의 永明5年(487)10月20日에 「燒身供養」 했다고 한다.

曇弘은 宋 永初年間(420—422)의 사람이며 그의 「燒身」은 孝建2年(455)의 일이라고 했고 그는 늘 「誦無量壽及觀經 誓心安養」 했다고 記錄하고 있다.

以上の 高僧들의 行蹟에 關係서는 法苑珠林(4) 이 그 大部分을 그대로 옮겨쓰고 있다.

續高僧傳에서는 法灑·僧崖·會通 등이 燒身供養으로 이름을 남긴 例로 나와 있다. 法灑은 燒指 燒臂로부터 「至身盡」하는 사람이던, 무슨 緣에 佐據된다는 言及은 없다. 僧崖의 境遇에도 燒指·燒臂 이야기가 나오며, 崖가 「氣集城西大道 談論法化」했다 하므로 法化를 法花로 보는 것도 無妨할 것 같다. 會通은 「讀法花經至藥王品便欣願捨私棄柴木誓必行之. 以貞觀末年靜夜林中積薪爲窟 誦至藥王便令下火. 風騰焰發煙火俱盛 卓爾加坐靜誦如故 轉爾西南有火白光流入火聚 身方偃仆 至曉身火俱滅」했다 하므로 分明히 法花經과의 關聯이 있음을 알 수 있다.

2

위의 例들에서 보는 바와같이 焚身乃至 燒身의 理論的 背景은 法華經第22藥王菩薩本事品이다. 더 넓은 意味의 捨身, 즉 焚燒以外의 다른 手段으로 된 亡身等の 境遇까지를 包含하면, 그 背景이 되는 理論은 金光明經의 捨身品·無量壽經·觀經 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면 法華經藥王菩薩本事品에는 어떠한 文句가 있을까?

(藥王菩薩) 作是供養已 從三昧起 而自念言 我雖以神力供養於佛 不如以身供養 卽服諸香梅 檀薰陸 兜樓婆 畢力迦 沈水 膠香 又飲瞻蔔 諸華香油 滿千二百歲已 香油塗身 於日月淨明德前 以天寶衣. 而自纏身已 灌諸香油 以神通力隨 而自然身 光明遍照 八十億恒河沙世界 其中諸佛 同時讚言 善哉 善哉 善男子 是真精進 是名

(4) T. 2122 法苑珠林 卷第96 捨身篇 p. 991 c-p. 996 b.

眞法 供養如來 若以華香瓔珞 燒香 抹香 塗香 天綸旛蓋及海此岸
梅檀之香 如是等 種種諸物供養 所不能及 假使國城 妻子布施 亦
所不及 善男子 是名第一之施 於諸施中 最尊最上 以法供養 諸如
來故 作是語已而名默然 其身火然 千二百歲 過是已後 其身乃盡
一切衆生喜見菩薩 作如是法供養已命終之後 復生日月 淨明德佛國中
於淨德王家 結跏趺坐 忽然化生 卽爲其父 而說偈言

大王今當知 我經行往處

卽作得一切 現諸身三昧

動行大精進 捨所愛之身(5)

위에 列擧한 高僧들의 焚身意欲을 알기 爲하여 다만 直接 該當이 되는 이 句節만을 引用하는 것이 不充分한 일임은 두말할 것도 없다. 적어도 法華經 한卷의 眞義가 믿음으로 証得되지 않으면 그러한 非常한 舉動의 意義는 理解되지 않을 것이다. 法華經은 本來 譬喩를 爲主로 하여 매우 象徵主義的 表現을 좋아하는 獨特한 文体를 가진 經이다. 얼핏 보면 荒唐한 것 같은 한마디속에 深奧한 宗教的 體驗을 要求하는 教訓이 隱喩되어 있다. 우리는 그러한 것이 多少間 理解되어 있다는 前提下에서 우리의 主題와 關聯된 前揭句節만을 問題로 삼자.

供養(pūjā)을 드리거나서 三昧(Samāhi)에서 일어나 스스로 이와같이 생각했다고 했다.

“내가 神力을 가지고 부처님께 供養드린다 할지라도 身供養을 함과 같지 못할 것이다.”

이것을 梵本(6)은

(5) T.261 妙法蓮華經 卷第6 藥王菩薩本事品 第23 p.53 a-p.55 a.

(6) Wogihara and Tsuchida, Saddharmapundarikasutram, 1958, Tokyo, XXII, 3, 4. (p.341-p.342)

na tatha rddhi-pratiharya-samdar shanena bhagavatah pã ja
krta bhavatyath' atmabhava-parityagena .

라고 하고 있다. 漢譯에서 「神力」이라한 것은 rddhi-pr à-
tih àrya (=magic performance) 를 나타내는 것(samdar, sana)
을 意味하되, 「供養」이라 한 것은 "à tmabhâ va-parity â ga
(=sacrifice of one's body)"를 翻譯한 것이다. 부처님께 供養
供養을 puja라 하는데 이名詞의 語幹이 되는 動詞語根은 pujo
to honour worship, revere, respect, regard의 뜻을 가진다. 世尊
을 "敬拜한다"는 것이었다. 世尊께 敬拜드리는데, "내가 이렇게 훌륭한
魔力的 神力을 讚揚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란 수프 있으나 그것은
"이 몸을 버리게 바치나이다"하는 것만 하지 못하다는 뜻일
것이다. parity â ga는 pã ri+ tyaga로서 "온전히(pari) 버리는 것
(tyaga)"이다. "버리는 것(tyaga)"은 더 흔히 Rgveda以來 인
도에서 "犧牲으로 바치는 것"이란 뜻으로 쓰여왔다. atmabhâ va는
Shâ rira와 마찬가지로, 卽 "몸"을 意味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捨
身」이란 漢譯의 차를 수 있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바치심 犧牲으로서의 "몸"은 微賤한 것이라는 烙印을 뒀
지 못한다. 그것은 우리가 앞서 보아온 바와 같이 慧益이 말하는 「微
軀賤命」이다. 그것은 僧崖의 境運과같이 「旣捨」할 것인 것이다.
그러나 이 微軀賤命이 微하고 賤한 그대로 남겨진다는 것은 아
니다. 손장 種豆의 香料를 먹고, 마시고, 또는 바르고, 그렇게 하거
를 漢譯으로는 「千二百歲」, 梵本으로는 「十二年」을 繼續해야 한
다는 것이다. 高僧傳에 나온 法羽는 香屑를 먹었고, 慧益은 穀粒
을 먹지 않고 밀가루를 먹다가 다시 蘇油만을 마시고 그 後에는
香丸만을 먹어 왔다는 事實, 僧慶이 亦是 「漸絕糧粒唯服香油」였
다는 것이나, 또 法光이 「絕五穀唯餌松葉」하고 「服松膏及飲油經

于半年」했다는 事實은, 法華經藥王品の 敎訓을 따른 것이지만, 그것은 이“몸”이 微賤한 그대로 바쳐지는 것이 아니라, 齋戒沐浴된, 다시 말하면 슬기로운 苦行으로 淨化된 것이어야 한다는 생각을 들소 宜明해 주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然身」 즉 스스로 그 몸에 불사르는 「身供養」은 이루어지며, 그것은 「八十億恒河沙世界에 光明이 遍照」하게 하는 것이다. 「身供養」이 「光明遍照」로 象徵되는 文學的 테크니크를 우리는 看過하고 말하여야 할 것이다. 梵文에는 없지만 이와같은 「然身」이 漢譯에서는 「日月淨明德佛」에서 이루어 진다고 하였다.

그때에 八十億恒河沙世界속의 諸佛은 同時에 「善哉 善哉 善男子 是眞精髓 是名眞法供養如來」라고 하신다. 梵文은 “작하도다, 작하도다, 善男子야, 작하도다, 너는 菩薩中の 참된 勇者로다. 이는 如來께 對한 참된 供養이며 法에 대한 참된 供養이로다”(tvam kula-putrayan sa bhuto bodhisattvanam mahasattvanam viry arambha iyam sa bhuta tathagata-puja dharmapuja) 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것은 「第一之施, 於諸施中最尊最上 以法供養諸如來故」라고한다. 漢譯보다 梵才은 이것을 더 明確히 說明해 주고 있다. “이는 最上의 施物이다 善男子야, 自身을 버려서 供養하는 것은 特殊하고 最上한 特殊勝, 最勝最高한 法供養이니라”(iyam punah kula-putra vishistagra var â pravara pranita dharmapuja yo'yam atmabhava-parityagah)

이와같은 法供養을 통해 죽어간 菩薩은 다시 日月淨明德佛國中에 태어난다고 했다.

은 經의 敎訓을 予想하고 있는 것이 있다. 그 中의 捨身品이라 하는 것은 金光明經第4 捨身品(7) 및 그와 同系統의 所說을 가 르키는 것일 것이다. 金光明經捨身品에 실린 內容은 흔히 「菩薩 投身餓虎」 또는 「摩訶薩埵以身施虎」라고 불리우는 이야기로서 一連의 經들이 같은 內容의 것을 引用하고 있다. (8) 굶주린 호랑이에게 貪·瞋·癡로 더럽혀진 이 몸을 메기로 주어 布施를 成就시킨다는 內容이다. 우리는 여기에 關하여 길게 說明하고자 하지 않는다. 다만 「捨身」이 布施中 最上最勝의 것이라는 主張이 法華經과 이 金光明經에서 一致한다는 點만을 말해두면 足한 것이다.

「捨身」에 關한 理論的說명이 詳細한 것에 또 大丈夫論捨身命品(9)이 있다. 菩薩은 慈悲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衆生이 苦痛속에 잠겨 있을때 그들을 濟度할 것을 發願한다. 菩薩은 사람들이 求하는 것이라면 모든 것을 주어버려도 아까워 하지 않는 存在다. 오직 그의 目的은 最上한 佛智를 求하고 一切 衆生을 求하려는 目的밖에는 없다. 救濟를 위해서 무엇인들 버리지 않을 것이 있겠는가? 남을 爲해서는 自己의 涅槃마저도 姑捨했다. 어찌 自己 一身쯤 버리지 못하겠는가? 身命을 버리는데, 財物을 버리는 것 쯤이 무엇이 어렵겠는가? (菩薩悲心一切衆生苦圍繞 發願度諸衆生 菩薩諸有所索一切皆捨無物不與 欲求佛智最上救濟一切衆生尊有勝悲心欲行救濟何物不捨 有悲心者爲他故涅槃常捨 沉

(7) T.663 金光明王經卷第4 捨身品第17 P.353 c—p.356 c.

(8) T.202 賢愚經第1 摩訶薩埵以身施虎品第2 P.352 b—P.353 b)

T.172 菩薩投身餓虎起塔因緣經 P.424 b—P.428 a, T.374 大般涅槃經 第14 捨身聞偈의 本生 P.450 a—451 b

(9) T.1577 大丈夫論上 捨一切品第10 P.261 a, b, c, 捨身命品第12P.262 a.

復捨身 捨身命財有何難也) 「悲」라는 것은 「一切都捨」라 했다. 「捨身하는 者は 法身を 얻는다. 法身を 얻는 者は 一切種智를 얻는다.」(捨身者得於法身 得法身者得一切種智)고 한다. 「能히 身命을 버리는 者は 天上에 태어나며 身命을 버릴때 歡喜는 無量하다」(能捨身命得生天上 捨身命時歡喜無量)고 한다. (10) 이것은 前掲 法華經藥王品中 引用句의 마지막部分의 이야기와 一致한다. 「菩薩은 一切種智를 爲하는 까닭에, 그리고 大悲心이란 衆生을 爲한 것인 까닭에 捨身捨命하면 헛되지 않은 果報를 얻는다. 만약에 捨身을 하되 果報가 있다면 그것은 헛된 捨身을 한 것이다.」(菩薩爲一切種智故 大悲心爲衆生故 捨身捨命得果報不空 若一切捨身不得果報名空捨身) 「菩薩이 다른사람의 목숨을 건지기 爲해서 自己 목숨을 바칠수 있는 까닭은 다른 사람의 목숨이 곧 자기 목숨이기 때문이다.」(菩薩所以施命爲護他命故 何以故 他命卽是我命)라고 한다. (11) 大丈夫論이란 題目中の 「大丈夫」는 곧 菩薩을 가리키는 것으로 以上과 같은 見解에 立脚하면 「捨身」은 菩薩行의 精髓이기도 하다.

大丈夫論에서 「悲」가 「一切都捨」라고 한 것이라면 가, 「捨身으로써 法身を 얻는다」던가 한 것은 法華經의 「身供養」即 ātma-bhāva parityāga (捨身)가 곧 大悲成就, 法身成就의 意味를 가짐을 알게 한다. 그러므로 「最勝最高의 法供養」은 「一切都捨」를 통한 「大悲의 成就」• 「法身の 成就」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을 얻게끔 하는 것은 定이며 慧이다. 그것은 謙遜한 無我行이다. 그런 意味에서 平南長史가 慧益의 故地에서 음

(10) ibid. 捨一切品第10

(11) ibid. 捨身命品第12

은 贊타의 「英英泐」 「慧定心固」라 한 것은 事理에 的인하는 表現이라 할 수 있다.

4

사람들 가운데에는 이와같은 「捨身」이 不殺生의 戒律에 背馳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疑問을 提起하는 이가 있으므로 이의 說明에서 理解가 되었으리라고 믿어지 蛇足과 같지만 몇다디 附言하러 한다.

般若空의 原理를 事物判斷의 基礎에 가지고 있는 大乘의 見解에 依하면 不殺生도 또 그 原理에 根據하여 理解되지 않으면 안된다.

于先 우리는 大乘律이라고 불러우는 梵網經이 이 問題에 關하여 言及하고 있는 것을 들어보기로 하자.

若佛子 應好心先學大乘威儀經律 廣開解義味 見後新學菩薩有從百里千里來求大乘經律 應如法爲說一切苦行 若燒身燒臂指若不燒身臂指供養諸佛。……菩薩爲利養故應答不答 倒說經律文字無前無后謗三寶說者 犯輕垢罪。(12)

이를 要約하면 大乘의 威儀經律을 먼저 배우고 그 뜻을 널리 解明하고자 하는 菩薩이 있어서 百里千里로부터 大乘經律을 求하러 오는 것을 만나면 法대로 一切苦行을 行하여야 한다. 그것이 燒身燒臂燒指하여 佛供養을 드리는 것이던가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하지 않고서 佛供養을 드리는 것이던가 간에, 그러나 菩薩이 物質的인 利益 때문에 應當 對答해야 할 것을 對答하지 않고 經律의 文字를 꺼꾸로 說하면 前無後無한 三寶誹謗의 罪를 犯한다는 것이다.

(12) T.1848 梵網經卷下 P.1006 a

이와같은 主張은 梵網經의 註疏들가운데서 보다 明白히 나타나 있다. 法藏은 그 疏의 惜法規則戒第16에서 燒身燒臂燒指等으로 佛供養을 드리는 것이 위로는 부처님께 供養을 드리는 것이고 밑으로는 衆生을 濟度하는 것이며 이 두곳에서 身命을 아끼지 않는 것이라고 하면서 이와같은 規則을 만든 것이 苦行을 說하여 그 뜻을 堅固케 하는데 目的이 있다고 하는 것이다. (13) 新羅의 義寂도 그 菩薩戒本疏 第6 無倒說法戒가운데서 이 戒가 먼저 苦痛스러운 일을 說하여 그 마음을 試驗하기 위한 것이었고 다음에 正法을 說하여 그 理解를 促求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하면서 다음과같이 繼續하여 說明한다. 그 大志를 알고져 苦事를 說한 것인데 그 苦事中에서는 두가지가 問題되어 있다고 했다. 卽

1) 燒身하여 諸佛에게 供養하는 것과,

2) 形骸를 버려 줄주된 苦痛에서 救하는 것이다 라고 하고 있다. (14) 이 後者が 「捨身餵虎」와 關聯있는 것임은 勿論이다. 結局 燒身 또는 捨身이 犯戒가 된다고 主張하는 것은 倒說을 敢行하는 犯戒가 된다는 것이다.

(13) T.1813 梵網經法藏疏 卷5 P.641 b.c.의

「初制意者 新學求法 理宜爲說 如垂此鬪 爲失至重 故須制也 略由三意 一爲護前墮法重罪 二爲欲攝護新學法器令正行有依 三爲護正法傳燈不絕 故須制也……………」

하고 내려가서

「先說苦行令堅其志 後說正法令增慧悟 前中亦二 初爲說一切苦行者總標也 下別辨中 謂上供諸佛 下濟衆生於此二處不惜軀命云云」하고 있다.

(14) T.1814 菩薩戒本疏 卷下 P.675 c-P.676 a.

「正辨爲他垂倒說法 於中有二 初說苦事以試其心 後說正法以開其解 爲欲知其大志故說苦事 以試心爲欲發其大行故說正法以開解 說苦事中以二事試之一燒身以供養諸佛 二捨形以救餓苦……………」